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비닐막을 설치한 다음 지지대에 끈끈이 트랩을 붙여 놓으면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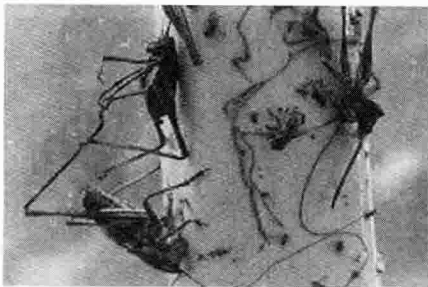
또 민간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막걸리 트랩을 이용할 수 있다. 토양곤충을 채집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pitfall트랩(함정트랩)을 변형한 방법으로 페트병 윗부분을 자른 뒤 몸통에 덮어 씌워 만든 구조로 그 안에 설탕을 섞은 막걸리를 넣어두면 냄새를 맡고 병안에 들어가 나오지 못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루에 10~20마리의 여치를 잡을 수 있으므로 한 나무에 5개씩 달아 놓으면 하루에 50~100마리 정도를 잡을 수 있다. ㉞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5월〉



▲ 막걸리를 이용한 트랩



▲ 끈끈이 트랩

오이 목화진딧물을 친환경적으로 병제

김 형 환 농업연구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원예환경과

목화진딧물의 발생생태와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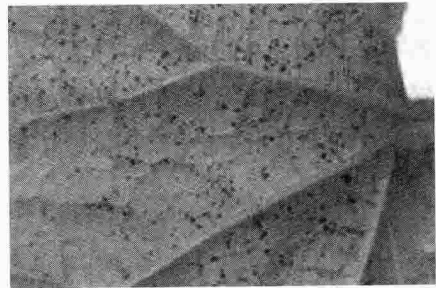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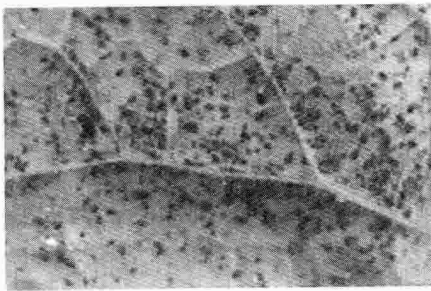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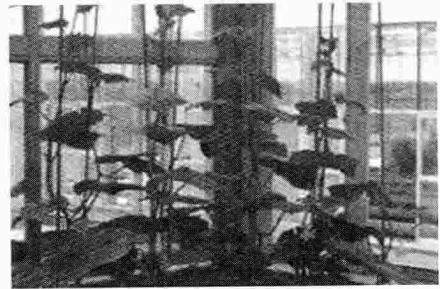
목화진딧물은 시설재배 오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으로 연중 피해를 주고 있다. 오이를 아주 심은 초기에 시설하우스 밖에서 날개가 있는 성충이 안으로 날아 들어와 아래쪽 잎에서부터 약충을 낳아 무리를 지어 생활하다가 어린잎에 발생하여 피해를 준다.

시설하우스에서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되면 급격하게 발생수가 늘어나며 꽃과 열매에도 발생하여 착과를 방해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어린 모종이나 아주 심은 초기에 바이러스 보독충이 즙액을 빨아먹으면 바이러스병 발생이 많아져 흡즙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매개와 같은 간접적인 피해도 크다.

날개가 있는 성충의 몸길이는 1.4mm 정도이며 몸 색깔은 계절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봄에는 녹색이 대부분이나 여름에는 황색 내지 황갈색이고, 가을에는 갈색이나 흑갈색을 띤다. 날개가 없는 성충은 몸길이가 1.5mm로서 몸 색깔은 계절에 따라서 녹색, 흑록색 또는 검은 빛깔을 띤다.

목화진딧물을 방제하는 대책

목화진딧물은 날개가 없는 성충이나 약충은 끈끈이트랩에 유인이 잘되지 않지만, 날개가 있는 성충은 유인이 잘되기 때문에 오이를 아주 심은 즉시 새 잎 위에 노란색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진딧물의



▲ 방제처리를 하지 않은 오이 생육과 목화진딧물

▲ 친환경자재 처리 오이 생육과 죽은 목화진딧물

발생을 예찰한다.

노란색 끈끈이트랩에 목화진딧물 1~10마리가 유인되면 친환경농자재를 기준살포 농도로 7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하면 진딧물의 밀도증가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목화진딧물은 온실의 입구 부근에서부터 발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입구에 있는 오이 잎을 살펴 진딧물이 발견되면 온실 전체보다는 진딧물이 발견된 반경 10그루 이내로 친환경농자재의 살포범위를 정한다.

반축성 재배 시 초기에 예찰을 하지 못해 제때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오이 한 잎 당 1,000마리 이상 진딧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때는 기준살포 농도로 3일 간격으로 3회 처리하면 효과적이다. 목화진딧물의 밀도가 많아지면 온실 전체나 오이 한 포기 위, 가운데, 아래에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발생초기에 살포한 양보다 많은 물을 잎 뒷면에 골고루 흠뻑 뿌리면 방제효과가 높다.

6월 중순에서 7월 말과 같이 고온기 여름재배

오이에서는 천적의 효과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자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때는 친환경농자재를 3일 간격으로 3회 뿌리고, 14일 후 다시 3일 간격으로 2회 뿌리면 방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친환경자재에는 스위프 등이 있다. ㉞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7월〉